

# “천혜의 해양자원 체계적 개발로 지역발전 근간 삼아야”

‘신해양 관광시대를 선도하다’ 전남관광개발포럼 지상중계



송재호 위원장 심원섭 교수 박경열 실장

관광자원, AI·빅데이터와 융합 지속가능 관광모델 만들어야  
지역·자원간 협력체계 보완, 해양관광 패키지 개발 등 시급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반드시 필요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종합적·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행정기관인 ‘남해안 종합개발청’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집중됐다.

여기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제주 고속철도의 신설, 관광 분야 지자체 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 해안-해양-도시-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책 간의 통합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주관해 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호텔에서 열린 전남관광개발포럼 ‘신해양 관광시대를 선도하다: 전남의 비전’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송재호 국회의장 자원위원장, 주제 발표를 한 심원섭 목포대 교수,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등은 미래 해양관광의 잠재력과 전남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성공 전략들을 제시했다.

◇“전남이 가진 천혜의 해양자원-종합·체계적인 개발 필요”=전남은 유인도 272곳을 포함한 2165개의 섬(전국의 65%), 리아스식 해안 6873km(전국의 45%), 1102개의 어항(전국의 47.8%)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오랜 기간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리할 전남만의

자산이라는 것에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지금까지 수산물 생산·유통에만 집중되었던 이들 자원을 관광 부문으로 확장시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재호 국회의장 자원위원장은 기조연설 ‘해양관광의 세계적인 추세와 인사이트’에서 “글로벌 해양관광의 트렌드는 친환경 해양관광, 고급화 및 개인화된 여행 경험, 해양레저 및 스포츠 관광 등으로 요약된다”며 “전남의 다도해는 풍부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 관광·해양레저·문화 체험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가와 놀이가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며, 관광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해양 레저, 웰니스, 힐링 등이 결합한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전남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인공기능 및 기술혁신과 융합하면서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 콘텐츠와 상품, 연계·협력으로 매력 높여야”=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는 “지역 간 관광협력 성공 사례와 추진 전략”을 주제로 주제 발표에 나서 “한정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



‘2024 전남관광개발포럼’이 열린 14일 오후 현대 바이 라한 호텔에서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태군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회 관광역량 축적을 위해 각 지역의 핵심 콘텐츠 및 상품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라면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이를 위해 지역 간 협력조직 체계 보완, 협력 추진을 위한 자원 마련과 인센티브 확보, 법·제도 보완,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개발 등을 제안했다. 국내의 사례로는 일본 광역관광루트 조성사업, 간사이광역연합 관광추진지구, 스위스 그랜드투어코스, 강진-해남-영암의 ‘강해영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해양레저관광트렌드 변화와 전남 관광콘텐츠 개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해양관광의 진화, 관광 부문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인식화 등이 현재 세계 해양관광의 트렌드”라며 “관광의 일상화·다양화, 개인의 다양한 활동공간과 지역의 장소성 결합, 인문과 기술과학의 융합, 관광의 본원적 가치 중시 및 감성화 소비, 관광거점 공간의 재배치와 지역 간 성장 격차 해소

등이 지역관광개발의 5개 키워드”라고 소개했다.

박 실장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시드니 달링하버, 볼티모어 이너하버, 함부르크 미디어하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해양레저관광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전남형 관광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해 “지역 간·자원 간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관광콘텐츠 발굴·기획·실현을 위해 해양 분야 관광패키지 개발, 총괄 코디네이션 지정, 부처 및 지자체 협업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갯벌, 촌스러운 지역 문화, 강한 지역성 등을 엮어내는 노력 필요”=기조연설, 주제 발표 이후 박정규 (사)한국관광연구원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안태기 광주대 교수, 최진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 등이 ‘전남 신해양·문화관광 주도권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은 “전남의 해안을 따라 세계적인 자전거 코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며 “한국관광공사가 조만간 해남 오시안노 관광단지 내에 4성급 리조트호텔 ‘해남126 오시

아노’를 개장하는데, 이러한 좋은 호텔들이 들어선다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기 광주대 교수는 “오징어게임처럼 우리의 촌스러운 문화도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과거에 했던 것, 지역민들이 사랑하는 것을 콘텐츠로 묶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의 유산으로 지정된 전남의 갯벌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인 조형물 설치, 관광 코스 조성, 해양에서 갯벌을 볼 수 있는 호텔 설립 등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해양관광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행정절차도 너무나 어렵고 오래 걸린다”며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의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토대로 남해안권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尹, APEC·G20 참석차 페루 출국...김건희 동행 않고 한동훈 환송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기간인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크며,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또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외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회의 개최 계획도 소개한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경주에서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野,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야당 의원 가운데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해외 연수’ 일정으로 불참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군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